



2027학년도 지역의사 첫 선발, 지원자격부터 의무복무까지 궁금증 한눈에

- 9월 7일부터 31개 대학 첫 지역의사선발 수시모집 시작 -
- 복지부·교육부, 「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」 발간 -
- 지원자격·이사 및 전학지원내용·의무복무·조건부 면허 등 주요 궁금증 FAQ로 안내 -
- 지역 의사지원센터 통해 교육·진로·경력개발·지역 정착까지 체계적 지원 -

【관련 국정과제】 84-3. 지역·필수·공공의료 인력 양성

보건복지부(장관 정은경)와 교육부(장관 최교진)는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첫 수시모집을 앞두고, 수험생과 학부모 등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은 「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(FAQ)」를 발표하였다.

2027학년도에는 서울을 제외한 32개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에서 총 490명의 지역의사를 처음 선발한다. 차 의과학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은 별도 일정에 따라 지난 8월 4일부터 6일까지 원서접수를 진행하였으며, 나머지 31개 대학은 9월 7일부터 시작되는 수시모집을 통해 첫 지역의사선발에 나선다.

■ 지역에서 성장한 인재를 지역의료의 핵심인재로

지역의사제는 지역에서 성장한 학생을 별도의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한 뒤 국가와 지방정부가 교육과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의사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도록 하는 제도이다.

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에 필요한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, 2027학년도에는 진료권 단위 359명, 광역권 단위 131명 등 총 490명을 선발한다.

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게는 등록금·교재비·실습비·기숙사비 등 학비를 지원하고, 의과대학 교육과정과 함께 지역의료에 필요한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추가적인 교육과 실습 기회를 제공한다.

의사면허를 취득한 이후에는 선발 당시 공고된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의무복무하게 된다.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사면허를 부여할 때 해당 의무복무지역에서 10년간 복무하는 조건을 부가하며, 의무복무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, 면허자격 정지 및 면허취소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.

정부는 지역의사가 의무복무 기간 동안 지역의료를 이끄는 역량 있는 의료인으로 성장하고, 이후에도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전 과정에서 지원할 계획이다.

올해 하반기 공모를 거쳐 지역의사지원센터를 선정하고, 지원센터를 통해 ▲진로상담·정보제공, ▲직무교육, ▲경력개발, ▲국내외 연수, ▲주거 안정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.

의무복무를 완료한 지역의사에 대해서는 복무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우선채용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으며, 의료취약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·운영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다.

< 지역의사제 주요내용 >

구분	주요 내용
선발	'27학년도 32개 의과대학·의학전문대학원 490명 ※'28~'31년 연 613명
지원자격	①법령에서 정한 지역(진료권·광역권)의 중·고교 입학부터 졸업까지 이수하고, ②재학기간 중 해당 지역(진료권·광역권 기준) 거주
교육·지원	입학금·수업료·교재비·기숙사비 등 학비 지원, 지역·공공의료 관련 교육 및 실습
의무복무	의사면허 취득 후 선발 당시 공고된 지역에서 10년간 복무
면허	10년간 의무복무지역 복무를 의사면허의 조건으로 부가(조건부 면허)
성장·정착 지원	중앙·권역 지역의사지원센터를 통한 직무교육, 진로·경력개발, 주거·연수 등 지원
복무 이후	공공보건의료기관 등 우선채용,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개설운영 시 행정재정 지원 가능

■ 첫 수시모집 앞두고 실제 문의사항 중심 FAQ 마련

앞서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수험생과 학부모가 지역의사선발전형의 내용과 지원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「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」(별첨1)를 마련하여 지방정부·교육청 등에 공문으로 배포하고, 두 부처 누리집에 게재한 바 있다.

이번에 추가로 공개하는 「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(FAQ)」(별첨2)는 안내자료 배포 이후 수험생·학부모, 대학 및 교육청 등에서 문의가 많았던 사항을 중심으로 지원자격과 전형 적용기준 등을 보다 쉽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지원 길잡이(FAQ)에는 ▲지역의사선발전형의 지원 및 의무사항, ▲중·고등학교 소재지와 거주요건, ▲진료권·광역권 모집의 차이, ▲수련기간의 의무복무 인정 등 주요 문답과 사례를 중심으로 담았다.

특히 수험생 문의가 많은 학교·거주요건과 이사·전학 사례도 구체적으로 안내한다. 지역의사선발전형은 현재 거주지나 졸업한 고등학교만으로 지원자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, 법령에서 정한 중·고등학교 이수요건과 재학기간 중 거주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. 전학이나 이사 자체만으로 지원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, 학교의 소재지와 재학기간 중 거주지가 지원하려는 모집단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.

< 이사·전학 등에 따른 지원자격 주요 사례 >

주요 사례	진료권 모집	광역권 모집
재학기간 중 같은 진료권 내에서 이사·전학	해당 진료권의 학교·거주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지원 가능	해당 광역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같은 광역권 내 다른 진료권으로 이사·전학	중학교는 광역 기준이므로 가능 고교는 진료권 지원 불가능	해당 광역권 내 학교·거주요건을 충족하면 지원 가능
다른 광역권으로 이사·전학	지원 불가능	지원 불가능
학교와 거주지가 서로 다른 진료권에 위치	원칙적으로 지원 불가능 * 시행령 개정안 확인 필요	동일 광역권 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
※ 경기·인천은 광역권 모집 없음

※ 구체적인 지원 가능 여부와 제출서류 등은 반드시 **지원 대학의 모집요강 확인**

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각 대학 및 시·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수험생들이 지역 의사선발전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.

아울러 올해 하반기에는 「지역의사제 시행지침」을 마련하고 지역의사 지원센터를 선정하는 등 선발 이후 교육·지원부터 수련, 의무복무, 지역 정착까지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.

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“많은 논의와 준비를 거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지역의사를 선발하는 뜻깊은 첫걸음이 시작된다”라며, “지역의사로 선발된 학생들이 앞으로 지역의료를 이끄는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교육과 수련, 진로와 정착까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”라고 밝혔다.

이어 “지역을 사랑하고 지역 주민의 건강을 책임지고자 하는 학생들의 소신 있는 선택이 지역의료의 미래를 만들어 갈 것이다”라며, “지역의료에 관심과 뜻을 가진 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, 미래 지역의료의 주역이 될 여러분을 기다리겠다”라고 응원했다.

<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'미래 지역의사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' 확인하기 >

- 보건복지부TV(YouTube) :
<https://m.youtube.com/shorts/yBs3espcb7w>



<붙임> 1. 지역의사제 개요

2.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대학별 선발 인원

<별첨> 1.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안내

2. 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지원 길잡이(FAQ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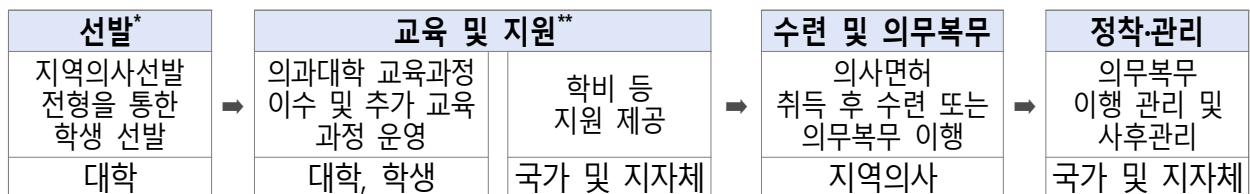
담당 부서	보건복지부 지역의료인력양성과	책임자	과 장	민차영 (044-202-1960)
		담당자	사무관	이수빈 (044-202-1961)
담당 부서	교육부 의대교육기반과	책임자	과 장	김태훈 (044-203-6894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욱 (044-203-6452)

붙임 1

지역의사제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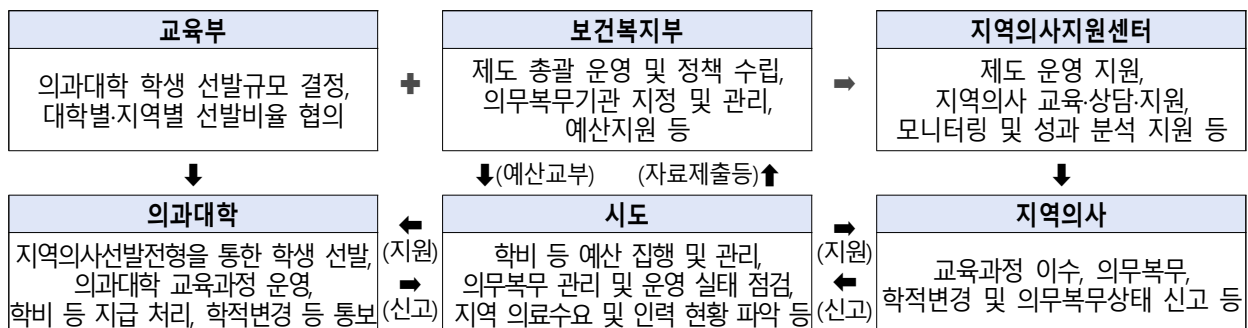
- (개요) 「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정('25.12)에 따라 지역에서 자란 의사가 지역의료를 책임지는 「지역의사제」 도입('27)
 - * 국정과제 84-3(지역의사제 도입을 통해 지역·필수의료 인력 안정적 확보)
- (배경) 지역 간 의사인력 불균형* 심화에 따라, 지역에서 의료를 제공할 의사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지역 의료공백 해소 필요
 - * (인구 천명당 의사수, '25.12) 서울 3.70명 vs 경북 1.43명, 충남 1.57명, 전남 1.71명
- (목적) 지역에서 근무할 의사를 체계적으로 양성 및 지원하여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 질 향상 도모
- (주요내용)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하고 학비 등을 지원 후 일정 기간(10년) 해당 지역에서 의무복무를 수행하도록 함
 - (지원사항) 등록금, 교재비·실습비, 주거비(기숙사비) 등

< 지역의사제 흐름도 >



- * (선발규모) '27년 490명, '28~'31년 연 613명('26.2.10.,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)
- * (학비 외 지원) ▲ 교육·복무 중 지원 – 주거·직무교육·경력개발·권익보호·진로상담 등, ▲ 복무 후 지원 – 공공의료기관 채용 우대, 취약지 개원 시 지원

- (추진체계) 보건복지부, 지자체, 지역의사지원센터(중양·광역) 등



붙임 2
2027학년도 지역의사선발전형 대학별 선발 인원

① 대전, 충남								
대학	천안권	공주권	서산권	논산권	홍성권		광역권	계
건양대	1	1	1	1	1		1	6
단국대	3	1	3	2	2		4	15
순천향대	4	1	3	2	2		6	18
을지대	1	1	1	1	1		1	6
충남대	6	2	5	3	3		8	27
소계	15	6	13	9	9		20	72
② 충북								
대학	청주권	충주권	제천권				광역권	계
건국대	3	1	1				2	7
충북대	19	6	2				12	39
소계	22	7	3				14	46
③ 광주, 전남								
대학	목포권	여수권	순천권	나주권	해남권	영광권	광역권	계
전남대	6	2	7	3	2	2	9	31
조선대	4	1	4	2	1	1	6	19
소계	10	3	11	5	3	3	15	50
④ 전북								
대학	전주권	군산권	익산권	정읍권	남원권		광역권	계
원광대	7	1	1	2	1		5	17
전북대	9	1	1	2	2		6	21
소계	16	2	2	4	3		11	38
⑤ 대구, 경북								
대학	포항권	경주권	안동권	구미권	영주권	상주권	광역권	계
경북대	4	5	2	5	1	1	8	26
계명대	2	3	1	3	1	1	4	15
대구가톨릭대	2	2	1	2	1	1	4	13
동국대	1	1	1	1	1	0	0	5
영남대	2	2	1	2	1	1	4	13
소계	11	13	6	13	5	4	20	72
⑥ 부산, 울산, 경남								
대학	창원권	진주권	통영권	김해권	거창권		광역권	계
경상국립대	5	3	2	5	1		6	22
고신대	1	1	1	1	1		2	7
동아대	4	2	1	4	1		5	17
부산대	7	4	3	7	1		9	31
울산대	1	1	1	1	1		0	5
인제대	4	2	1	3	1		4	15
소계	22	13	9	21	6		26	97
⑦ 강원								
대학	춘천권	원주권	영월권	강릉권	동해권	속초권	광역권	계
가톨릭관동대	1	1	1	1	1	1	0	6
강원대	8	7	2	4	3	3	12	39
연세대	2	2	1	1	1	1	3	11
한림대	1	1	1	1	1	1	1	7
소계	12	11	5	7	6	6	16	63
⑧ 제주								
대학	제주권	서귀포권					광역권	계
제주대	11	8					9	28
소계	11	8					9	28
⑨ 경기 · 인천								
대학	의정부권	남양주권	이천권	포천권	인천서북권	인천중부권	광역권	계
가천대	1	2	1	1	1	1	-	7
성균관대	1	1	0	1	0	0	-	3
아주대	1	1	1	1	1	1	-	6
인하대	1	1	1	1	1	1	-	6
차의과학대	0	1	0	1	0	0	-	2
소계	4	6	3	5	3	3	-	24
총 계	진료권 359 + 광역권(해당 권역 내 진료권 중 선택하여 근무) 131							490